Daishin 증권

2025년 12월 11일 목요일

Morning Meeting Brief

Strategy

[퀀틴전시 플랜] 폭풍전야, FOMC 를 앞두고 숨죽인 코스피

- FOMC, 매파적 분열 우려와 불확실성
- 코스피 – SK하이닉스 / 코스닥 – 바이오텍
- 특징업종: 유통, 5G, 방산

정해창. haechang.chung@daishin.com

Fixed Income

12 월 FOMC: "아무도 인상 쓰지 않는다"

- 美 기준금리 3.75%로 25bp 인하, 지난 9월 인하 재개 이후 3회 연속 인하
- 반대표 3인으로 다양한 의견 충돌, 파월 "그러나 적어도 인상 주장 없다"
- 고용에 초점을 둔 인하 기조 유지. 단 "규모와 시기" 는 고려, 속도 조절 시사

공동락. dongrak.kong@daishin.com

산업 및 종목 분석

[4Q25 Preview] LG 전자: 겨울에 사자, 그리고 2026 년 다르다! (목표주가 20%이상 상향)

- 4Q25 영업이익(연결, 205억원)은 부진하나 효율성 비용이 반영, 일시적
- 1Q26 영업이익(1.36조원)은 8.4% 증가(yoy) 추정, 회복의 시작, 연간 호조
- 현 주가는 저평가(P/B 0.7배), 상승 확대의 가능성에 주목

박강호, kangho.park@daishin.com

Strategy

폭풍전야, FOMC를 앞두고 숨죽인 코스피

Strategist Jr. 정해창
haechang.chung@daishin.com

Strategist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 FOMC, 매파적 분열 우려와 불확실성
- 코스피 – SK하이닉스 / 코스닥 – 바이오텍
- 특징업종: 유통, 5G, 방산

FOMC, 매파적 분열 우려와 불확실성

– 내일 새벽 FOMC를 앞두고 경계심리가 지속. 시장은 인하를 기정사실화하여 선반영한 상황. 다만, 연준 내부의 의견 분열이 그 어느때보다 높아지면서 향후 금리인하 경로에 대해 매파적 코멘트나 점도표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에 경계심리 강화

– 차기 연준의장 지명 전망과 파월 의장의 영향력 약화 또한 불안요인, 셧다운 여파로 데이터가 부재한 상황에서 연준의 정치적 의사결정 양상은 신뢰도에 영향, 시중금리의 리스크 프리미엄 상승을 유발

– 일본에 이어 EU와 호주, 캐나다 등 중앙은행들의 향후 금리인하 사이클 종료 시사. 시장은 연준의 점도표 장기금리 예측을 기다리고 있으나 9월 대비 비둘기파적 점도표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파월의 노련함. 연준 내부의 매파 의견과 시장을 동시에 달래면서 정치적 운신을 꾀해야 하는 파월의장이 모든 불확실성을 잠재우는 '미션 임파서블'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

코스피 – SK하이닉스 / 코스닥 – 바이오텍

– 코스피는 SK하이닉스의 약진에도 하락마감. SK하이닉스는 최근 미국 증시 ADR 상장설에 대해 다양한 기업가치 제고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공시. 사실상 ADR 상장 추진을 부정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

반도체 대표기업: SK하이닉스(+3.7%) / 삼성전자(–0.4%)

– 코스닥은 바이오 업종 중심으로 중소형주 아웃퍼폼. 미국 러셀2000 강세와 내년초 JP Morgan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두고 기술 및 임상 결과 등 모멘텀 기대

바이오텍: 에이비엘바이오(+9.0%), 삼천당제약(+5.3%), 오스코텍(+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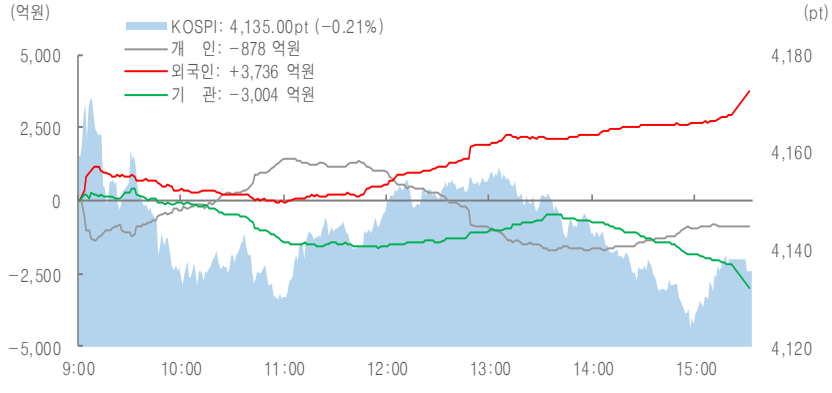
특징업종: 유통, 5G, 방산

– **유통**: 11월 고용동향과 10월 신용카드 결제액 감소, 내수 회복 둔화 우려
신세계(–2.0%), GS리테일(–2.2%), BGF리테일(–1.1%)

– **5G**: 정부, LTE와 5G를 혼용하는 NSA 방식에서 5G 단독 (SA) 전환을 의무화
RFHIC(+7.6%), 케이엠더블유(+6.1%), 쏠리드(+6.4%), 대덕전자(+1.0%)

– **방산**: 우크라이나, 미국에 수정된 평화협상안 전달 예정
한화오션(–2.3%), 한화에어로스페이스(–3.9%), 현대로템(–2.7%)

KOSPI 투자주체별 수급 및 장중흐름



Fixed Income

12월 FOMC: "아무도 인상 쓰지 않는다"

- 美 기준금리 3.75%로 25bp 인하, 지난 9월 인하 재개 이후 3회 연속 인하
- 반대표 3인으로 다양한 의견 충돌, 파월 "그러나 적어도 인상 주장 없다"
- 고용에 초점을 둔 인하 기조 유지. 단 "규모와 시기"는 고려, 속도 조절 시사

Fixed Income Strategist 공동락
dongrak.kong@daishin.com

미 연준, 12월 기준금리 3.75%(상한 기준)로 25bp 인하

미 연준(Fed)이 기준금리를 다시 인하했다. 지난 9월 기준금리 인하를 재개한 이후 3회 연속 이뤄진 인하다.

연준은 12월 9일~10일 (현지시각) 양일간 열린 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3.75~4.00%에서 3.50~3.75%로 0.25% 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금리 결정은 50bp 인하는 주장하는 스티븐 마이런과 동결을 주장하는 2인 오스탄 굴스비, 제프리 슈미드 이사 총 3인의 반대로 만장일치 결정이 아니었다. 반대 의견 3인은 2019년 9월 이후 6년 만에 가장 많은 숫자다.

한편 연준은 유동성 공급을 위해 재정증권 매입을 발표했다.

반대 의견이 많았던 25bp 인하. 그러나 "금리 인상 주장은 없다"

12월 금리 결정을 앞두고 시장에서는 25bp 인하를 높은 확률로 예상한 반면 이후 점도표나 기자회견을 놓고는 의견이 분분했다. 일단 지난 9월에 인하 사이클이 재개된 이후 금리를 3%대로 낮출 것이란 예상에는 딱히 논란이 없었던 반면 이번 인하로 낮아진 금리에 대한 통화당국의 평가 수위를 놓고는 다양한 견해들이 오갔다.

아울러 지난 9월 금리 인하를 재개하면서 시사한 고용과 물가 간의 균형 변화를 고려한 인하라는 선언에도 여전히 목표치를 웃도는 물가와 당장 크게 악화될 가능성이 적은 고용 간의 무게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를 놓고 연준 인사들이 다양한 의견을 표출한 이후 진행된 회의였다는 사실도 그 자체로 크게 주목을 받았다.

이에 연준은 기준금리를 다시 인하하는 동시에 향후 통화정책 결정 경로에서 물가보다는 고용에 보다 주안점을 두겠다는 기존 견해를 그대로 유지했다.

혼란스러운 지표 여건과 셧다운 이후에도 일부 지표들이 제대로 집계되지 않은 불확실성이 상존했으나 큰 틀은 여전히 '고용에 무게를 둔 인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동시에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역시 당초 상당한 의견 대립이나 그 과정에서 매파적인 입장이 부각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비둘기파적인 통화정책 이벤트가 이뤄졌다. 다만 향후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규모와 시기(the extent and timing)'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혀 속도 조절 가능성을 시사했다.

연준 위원들 간의 의견 대립은 매우 광범위하게 드러났다. 6년래 가장 많은 반대 의견이 등장했고, 점도표 상으로 드러난 기준금리 결정 과정에서 표결권이 없는 인사들의 반대표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더 늘어난다. 또한 빅컷을 주장한 마이런 이사로 추정되는 표까지 반영하면 올해 기준금리 결정이 모두 마무리됐음에도 불구하고 반대 의견들의 숫자나 분포는 매우 다양했다.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됩니다.

Earnings Preview

LG전자 (0665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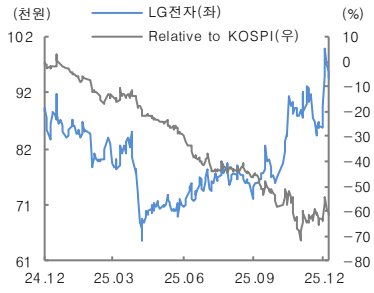
박강호
kangho.park@daishin.com
서지원RA
jiwon0.seo@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130,000 상향
현재주가 (25.12.10)	94,500

가전 및 전자부품업종

KOSPI	4135
시가총액	16,264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49%
자본금(보통주)	814십억원
52주 최고/최저	99,700원 / 64,7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563억원
외국인지분율	32.05%
주요주주	LG 외 2 인 35.27% 국민연금공단 6.51%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5.5	24.7	28.2	12.1
상대수익률	3.9	-0.1	-10.9	-34.5



겨울에 사자, 그리고 2026년 다르다!

- 4Q25 영업이익(연결, 205억원)은 부진하나 효율성 비용이 반영, 일시적
- 1Q26 영업이익(1.36조원)은 8.4% 증가(yoy) 추정, 회복의 시작, 연간 호조
- 현 주가는 저평가(P/B 0.7배), 상승 확대의 가능성에 주목

투자의견 매수(BUY) 유지, 목표주가 130,000원 상향(23.8%)

LG전자의 목표주가를 130,000원으로 상향(2026년 주당순자산(BPS) X 목표 P/B 0.95배 적용<실적 성장기 평균>), 투자의견은 매수(BUY) 유지. 2026년 1Q 실적 회복과 신성장 관점에서 포트폴리오 변화로 밸류에이션 상향의 가능성을 기대한 시점으로 판단. 2026년 긍정적인 요인에 주목, 점진적인 비중 확대를 신규 제시

2025년 4Q 영업이익(연결)은 205억원으로 컨센서스(-200억원)대비 양호할 것으로 추정, LG전자(별도)만의 영업이익은 -4,018억원으로 적자전환(qoq/적지 yoy)을 예상하나 2026년 도약을 위한 선제적인 효율성 제고 비용이 반영. 배경은 ① 4Q가 비수기인 동시에 ② 전사적 인력 효율화 진행(희망퇴직 등) 3) CEO 교체로 추가적인 비용을 예상한 실적으로 분석

현 시점에서 4Q25 실적 보다 2026년 1Q 및 연간으로 실적 개선 & 호조에 주목. 2026년 1Q 영업이익(연결)은 1.36조원(6543% qoq)으로 8.4%(yoy) 증가 등 정상화, 실적 개선을 예상. 선제적인 효율성 노력으로 2026년 비용 감소 속에 HS(가전)은 프리미엄 중심의 신제품 출시, 미국의 관세 정책(가격 인상 및 멕시코, 미국 내 생산 확대)에 능동적인 대응으로 성장(매출 +3.5% yoy)을 예상. MS(TV)는 프리미엄 TV(OLED) 주력 및 보급형에서 라인업 확대로 영업이익은 흑자전환(yoy)을 전망, ES는 에어컨의 성수기 진입 및 칠러 등 HVAC, B2B 영역에서 수주 증가를 예상 등 전 사업에서 성장, 이익 개선을 예상

26년 확대 요인 ①배당 ②HVAC 등 공조 ③ 영업이익 ④휴머노이드(로봇)

2026년 주목할 요인은 ① 2026년 영업이익은(연결, 3.8조원)은 45.9%(yoy) 증가 등 2025년대비 호조로 전환 예상. 현 주가는 P/B(2026년) 0.7배로 역사적 하단, 주가 하락보다 상승 확대에 초점을 맞춘 전략이 유효 ② 2026년 LG디스플레이의 실적 개선 등 지분법이익의 증가로 당기순이익은 31.9%(yoy) 증가 등 배당 재원이 확대될 전망. 또한 배당 정책의 변화, 인도법인의 상장으로 유입된 현금(약 1.5조원 규모) 활용에서 추가 배당 가능성을 전망. 최소 배당금(1천원/年, 2024년 주당 1천원) 정책을 제시한 가운데 2025년에 추가, 확대가 예상

③ ES는 칠러 등 HVAC, B2B 비중을 확대하여 데이터센터 및 빅테크에서 수주 증가가 예상. B2C 중심에서 시스템 에어컨, 대형 칠러 등 B2B로 포트폴리오 변화, HAVC에서 수주 증가로 밸류에이션 상향 가능 ④ HS에서 수익성이 추가적으로 확대. 2025년 미국의 관세 정책의 대응으로 미국, 멕시코에서 생산 비중 확대, 일부 가격 인상을 진행. 2026년 AI 기능 채택 및 프리미엄 중심의 성장으로 2026년 영업이익률(5.9% HS 부문)은 사업 개편된(2024년) 이후에 최고 수익성을 예상

⑤ 휴머노이드 포함한 로봇 사업 추진에서 LG전자 및 그룹의 경쟁력을 보유. LG전자는 자체적으로 로봇 사업을 진행(스마트 팩토리, 서빙 로봇, AI기술 등), 핵심부품을 담당할 계열사(LG이노텍은 고정밀 카메라모듈 및 액츄에이터, LG디스플레이는 OLED 디스플레이,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를 보유, 지분 출자(로보스타, 로보티즈 등)를 통한 시너지 창출이 가능. 글로벌 기업과 휴머노이드 및 로봇 추진에서 전략적인 관계 형성이 가능하다고 판단

▶ Compliance Notice

-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Research Center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위 애널리스트는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 ✓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